

제주학연구센터 '찾아가는 제주학 이야기'

2022 제주신화학교

- 당 신앙과 당신 본풀이

제주학연구센터 ‘찾아가는 제주학 이야기’

2022 제주신화학교

- 당 신앙과 당신 본풀이

| 일 시 | 2022. 4. 19. ~ 5. 24. (총 6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4시)

| 장 소 | 제주학연구센터 2층 강의실(제주시 임항로 278)

강의 일정				
차시	날짜	주제	강사	
1	4.19.	제주의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강소전 제주대 강사	
2	4.26.	제주의 산신당 신앙과 본풀이	고은영 제주대 강사	
3	5.3.	제주의 일렛당 신앙과 본풀이	이현정 제주대 강사	
4	5.10.	제주의 해신당 신앙과 본풀이	강소전 제주대 강사	
5	5.17.	제주의 으드렛당 신앙과 본풀이	류진옥 제주학연구소 연구원	
6	5.24.	현지 답사	이현정 제주대 강사	

제주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7
강소전(제주대학교)	
제주의 산신당 신앙과 본풀이	14
고은영 (제주대학교)	
일뿔당 신앙과 본풀이	31
이현정 (제주대학교)	
제주 해신당 신앙과 본풀이	41
강소전(제주대학교)	
제주 으드렛당 신앙과 본풀이	48
류진옥 (제주학연구소)	



제주시 구좌읍 송당본향당

제주 본향당 신앙과 당신 본풀이

강소전
(제주대학교)

[제주의 무속신앙]

1. 무속문화와 곳

- 기층의 오랜 민간신앙, 현재 여성 중심의 마을의례, 가정의례, 생업의례
- 마을의례 : 당굿(본향당, 일월당 등)
- 가정의례 : 큰굿, 작은굿, 비넘, 안택의례(문전제, 조왕제 등)
- 생업의례 : 해녀/어부(영등굿, 잠수굿 등), 목축/테우리(백중제, 테우리고사)

2. 지역적 현실과 정부 정책

- 제주(탐라)는 예부터 무속이 성행(고문헌 기록)
- 신당 파괴(이형상 목사)와 신당 복원
- 탐라국 입춘굿(親耕籍田)
- 국행 한라산신제
- 무속 당굿과 유식 포제(醺祭)의 이원화



<탐라국 입춘굿>

[제주의 무속신앙-조선시대 기록]

<김정(金淨, 1486~1521), 『濟州風土錄』(1520~1521년)>

사귀(祠鬼)를 몹시 숭배하여 무당(男巫)이 매우 많아서 사람이 재앙과 불행한 일이 생기면, 소리질러 비웃으며 두렵게 위협하면서 재물을 쉽게 갈취하고, 명일(名日)이나 삭망과 77일(初七, 十七, 二十七日)에는 반드시 짐승을 희생시켜서 음사(淫祠)를 위하므로, 음사는 거의 3백여소에 이르렀고, 해마다 더하여 가고 달마다 느니, 그릇되고 요사스러운 술법과 거짓됨이 자주 높아만 가도다. 사람이 질병이 나서 심하여도 약을 복용함을 두려워하고, 귀신이 노한 것이라 하여 죽음에 이르러서도 깨닫지 못한다.

<이원진(李元鎭, 1594~미상), 『耽羅志』(1653년)>

음사를 숭상한다[尙淫祀]: 풍속은 음사를 숭상하여 산과 숲, 내와 못, 높은 언덕이나 낮은 언덕, 물가와 평지, 나무와 돌 따위를 모두 신으로 섬겨 제사를 베푼다. 매년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날까지 남녀 무당이 주신을 모시는 기(神森)를 함께 받들고, 역귀를 쫓는 행사(儼戲)를 벌이면서 징과 북을 앞세워서 마을을 나들면, 마을 사람들이 다 투어 재물과 곡식을 내어 제사한다.

[제주의 당신본풀이]

1. 당신본풀이 현황

- 당곳에서 메인심방이 당신본풀이 구연
- 제주도 마을 각 신당마다 본풀이 존재. 서사가 풍부한 곳도 있고 미약한 곳도 있음
-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당신본풀이 채록 대표문헌. 이본(異本) 풍부
- 현재 약 700여 편 채록 *삼성신화(유일한 문헌신화, 당신본풀이 성격, 탐라건국신화)

2. 당신본풀이 내용

- 제주도 토착신(예:한라산신), 외부 출자신(예:강남천자국, 동해용왕국 등)의 다양함
- 신들의 결합과 분리: 혼인, 별거와 이혼(돼지고기 금기 위반), 자식분가 등
- 신들의 계보: 부모/자식 관계, 형제/자매 관계. 한라산계/송당계 등. 신당의 가지 가름
- 당신의 출생, 내력, 좌정경위, 단골과 만남, 제물과 의례방식 등 관련 정보 제공
- 가장 제주적인 본풀이. 제주도 마을의 형성, 역사와 문화 반영. 구비역사 증명
- 당신본풀이와 일반신본풀이/조상신본풀이의 상호 영향 드러남

[제주의 당신앙]

1. 마을 무속신앙의 중심

- 각 마을마다 존재, 현재도 약 300개 가까이 유지
- 노천형, 당집형, 궤형 등

2. 본향당(本鄕堂)

- 마을 토주관(土主官), 상/중/하단골, 메인심방
- 생산, 물고, 호적, 장적 차지. 신앙의 가지 가름

3. 기타 당신앙

- 일헛당: 산육(産育), 치병(治病)
- 여드렛당: 치병, 뱀신, *알토산마을
- 해신당(돈짓당, 개당, 님당 등): 어업
- 산신당: 목축, 수렵
- * 개인 조상당



<제주시 건입동 본향당-칠머리당>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예기업개당>

[제주의 본향당과 당곳]

1. 본향당의 4대 제일(祭日)

- 정월 신과세제(新過歲祭): 과세, 세배
- 2월 영등굿: 풍농(풍요), 영등신, 환영제/송별제
- 7월 마불림제: 장마 기운 날림, 조농사 관련
신의청소제(神衣淸掃祭)
- *마불림제 시기와 백중-우마증식(牛馬增殖)
- 9/10월 시만국대제(新萬穀大祭): 추수감사

2. 본향당곳의 변화

- 신과세제 중심으로 전승(다른 제일 당곳의 약화)
- '산곳'은 점점 줄어들고 현재 비념으로 변화 중



<제주시 조천읍 와흘본향당>



<제주시 구좌읍 동북본향당>

[제주도 민속문화재 지정-2005년 5곳]

- 송당본향당, 새미하로산당, 와흘본향당, 수산본향당, 월평다라룻당
- 역사성, 의례, 본풀이, 신앙민, 형태 등의 면에서 제주를 대표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본향당>



<제주시 회천동 새미하로산당>

[제주도 민속문화재 지정-2005년 5곳]

- 송당본향당, 새미하로산당, 와흘본향당, 수산본향당, 월평다라룻당
- 역사성, 의례, 본풀이, 신앙민, 형태 등의 면에서 제주를 대표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본향당>



<수산리 본향당 내부(제단)>

[제주도 민속문화재 지정-2005년 5곳]

- 송당본향당, 새미하로산당, 와흘본향당, 수산본향당, 월평다라룻당
- 역사성, 의례, 본풀이, 신앙민, 형태 등의 면에서 제주를 대표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본향당>



<제주시 월평동 다라룻당>

[송당리 본향당-당신본풀이]

- 백주또가 제주에서 태어난 소천국을 찾아와 둘은 혼인하였다.
- 백주또는 자식들이 태어나니 소천국에게 농사를 지어 살자고 하였다.
- 소천국이 농사짓다가 배고파 자기 소와 남의 소까지 잡아먹으니 백주또는 소천국과 헤어졌다.
- 시간이 흘러 아버지 없이 자란 막내아들이 아버지를 만나 버릇없는 행동을 하였다.
- 소천국은 막내아들을 무쇠함에 담아 바다에 띄워 버렸다.
- 무쇠함은 용왕국으로 들어가고 막내아들은 용왕국 막내딸아기와 만나 혼인하였다.
- 막내아들이 너무 많이 먹어 용왕국 창고가 비어가자 용왕은 돌을 무쇠함에 담아 쫓아냈다.
- 무쇠함은 강남천자국에 도착하고 막내아들은 그 곳에 생긴 난리를 해결하였다.
- 어릴 때 버린 막내아들이 제주로 돌아오자 부모는 놀라 달아나고 백주또는 송당 뒷마을, 소천국은 송당 아랫마을에 각각 좌정하였다.
- 부모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이 각각 흩어져 마을을 정하여 당신이 되었다.

[송당리 본향당굿-신과세제]

- 음력 1월 13일
- 백주또 당신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는 의미
- 현재까지도 매해 주민들이 대부분 참여하여 하루 종일 치름(산굿, 무악기 동반)
- 송당리 마을제
- 1986년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
- 당굿 제차(祭次)
- 켓문열림-예명올림-초감제(신청괘에서 본풀이)
- 석살림-추물공연-나까시리놀림-지장본풀이
- 군병질침-각산받음-액맥이-켓문더꿈



[송당리 본향당과 현재적 변화]

1. 본향당의 시설물
 - 당 왼쪽 기와 건물(문화재 정책과 현실의 괴리)
 - 우천 대비 천막 설치용 철골구조물(현재 철거)
 - 수도,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안내판
2. 송당신화축제(2004년)
 - 마을의 대표 문화유산으로 발굴 시도
 - 관광시기 상으로 마불림제 선택 문제
 - 1회성 행사 혹은 정기적 행사 문제
3. 행정지원과 당굿의 변화
 - 전통의 지원과 의도치 않은 역효과도 발생
 - 주민과 마을 자율적 단골 전통의 약화



[송당리 본향당굿-영등제, 마불림제, 시만국대제]

- 영등제 : 음력 2월 13일(비념)
- 마불림제 : 음력 7월 13일(비념)
- 시만국대제 : 음력 10월 13일(비념)



- 현재 제주도 신당의 뿌리라고 인식
- (과거 문헌 속에는 과양당, 내왓당, 차귀당 등 언급)
- 송당계라는 신들의 계보 형성
- (아들애기 열여덟, 딸애기 스물여덟, 손자애기 삼백일흔여덟)
- 당의 보존과 당굿의 전승이 양호
- (4대 제일에 따른 본향당굿의 모습을 간직)



제주의 산신당 신앙과 본풀이

고은영 (제주대학교)

1. 제주의 산신당본풀이와 의례¹⁾

1) 제주의 산신당본풀이

(1) 장수신(將帥神)

제주도는 호랑이가 없지만, 수렵·목축신이 ‘삼천병마 일만 초깃발’을 날리며 달리는 무신(武神)으로 표현 된다. 당굿에서 본향당신을 청하는〈본향당신 놀림〉제차에 들어가면, 펄쩍 뛰면서 활시위를 당기는 사냥꾼의 모습을 재현한다. 사냥의 신이기 때문에 육식식성(肉食食性)을 가졌고, ‘밥도 장군, 떡도 장군, 힘도 장군, 활동 장군’인 장수신이며, ‘대국의 난리를 평정하고 귀환’하는 전쟁의 신이다.

1)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58~87쪽.

(2) 당본풀이 요약

〈송당본풀이〉(1984년 송당 당굿 박인주 구연, 문무병 채록)

- A. 서울 남산 송악산에서 태어난 금백주가 알손당 ‘고부니믈’에서 솟아난 소로 소천국과 결혼한다(토착신과 외래신의 결혼-마을의 형성).
- B. 아들 열여덟, 딸 스물여덟을 낳고 산다(마을의 번성).
- C. 옷, 밥, 젖을 달라 조르는 자식들을 기르기 위해 남편과 경작하여 농사를 짓자고 약속한다(농경생활의 시작).
- D. 밭을 가는데 시주를 받으러 마을로 가던 동개남 상좌중이 소로소천국에게 점심밥을 달라고 하므로 밥을 주니 모두 먹고 달아나 버린다(배고픔의 발생).
- E. 시장기가 난 소로소천국은 밭을 갈던 소를 때려 죽여 구워 먹고 심지어는 남의 소까지 잡아먹고, 겨우 배고픔을 달래며 쟁기로만 밭을 갈아 나간다(배고픔의 해결-육식 식성).
- F. 화가 난 금백주는 땅 가르고 물 갈라 살림을 분산하자고 고함을 친다(이혼-가림).
- G. 부인과 가족을 떠나 소로소천국은 고부니믈로 내려가서 강진넉의 딸을 첩으로 얻고 수렵생활을 한다(토착신과 재혼-마을의 분리).
- H. 일곱째 아들이 자라서 일곱 살이 되니, 아버지 무릎에 앉아 수염을 잡아당기고 가슴팍을 치고 하니 불효하다고 하여 무쇠설갑에 담아 동해바다에 띄워 버린다(아들의 불효-추방).
- I. 석함은 동해바다 용왕국 산호수 가지에 걸려 용왕의 셋째 딸과 혼인하였는데, 너무 식성이 과다하였기 때문에 용궁에서 쫓겨나게 된다(혼인-식성 과다-추방).
- J. 강남국에 가서 세변을 막고 도원수가 되어 제주도에 돌아온다(난리평정-귀향).
- K. 아버지에게 절을 하려하니, 아버지는 달아나 당신이 되고, 어머니 금백주는 살 곳을 찾아 가, 산 설립, 물 설립하고 인간 백성들에게 수명장수, 오곡풍성, 육축번성, 농사설비 시켜주라고 한다(부자상봉-새마을 형성-당신의 기능 획득).
- L. 자식들은 사방으로 가지를 뻗어 마을 단골들에게 낳는 날 생산, 죽는 날 물고

받는 당신이 되었다(마을의 토주관-당신으로 좌정).

제주도 농촌사회의 생산활동은 산간 마을은 반농·반수렵, 중산간 마을은 반농·반목축으로 구성되기에 당신의 기능도 생산형태와 유사한 형태로 분화된다. 산간 마을은 남신 수렵의 신과 여신 농경신이 따로 좌정하고, 중산간 마을은 남신 목축의 신과 여신 농경·산육의 신이 부부신으로 좌정한다.

2) 당굿의제차

당굿의 제차는 보통 삼석올림→‘궤문열림→열명→당굿→궤문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가. 삼석올림

나. 궤문열림

다. 예명올림(열명)

라. 당굿

- ① 초감제-베포도업침→날과국섬김→마을연유닭음→군문열림→산받음→분부사름→주잔권잔→새드림
- ② 본향뚝-신청궤→본향청함(당본풀이→우봉지주잔→본향드리)→소지사름→정대우→삼헌관 헌작배례→음복지주잔→군웅놀림
- ③ 추물공연-나까시리놀림→지장본풀이→삼천군병지사빔
- ④ 석살림(군웅놀림)
- ⑤ 마을 도산받음
- ⑥ 집안 각산받음
- ⑦ 마을 도액막음-사만이본풀이→산받아분부사름→마을도액막음→각산받음→넋들이고 푸다시함

⑧ 집안 액막음

⑨ 산신놀이

⑩ 도진

마. 궤문음

가. 삼석올림은 연물(악기)을 세 번 쳐서 굿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삼천전제석궁의 신들에게 ‘지금부터 굿을 시작합니다’하고 알리는 청신의례다.

나. 궤문열림은 궤문을 여는 의례로 납작한 돌을 열어, 신이 이 구멍을 통하여 나오게 하는 것이다.

다. 열명 또는 예명올림은 단골 신앙민들이 차려 온 제물을 제장에 진설하고, 쌀이나 돈과 함께 집안 식구의 이름을 적어 심방에게 주면, 심방은 그 이름을 하나 하나 신에게 아뢰어 ‘어느 집안에서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라. 당굿

① <초감제>는 청신의례로, 심방이 굿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신칼과 요령을 들고 춤을 추고 사방에 절을 세 번 하고 순서에 따라 굿을 진행해 나간다. <초감제>의 진행은 ‘a베포도업침→b날과국섬김→c마을연유닭음→d군문열림→e산받음→f분부사름→g주잔권잔→h새드림’으로 진행된다.

[a베포도업침]: 우주의 질서와 천지개벽, 그리고 인간이 생겨나 세상을 경영하게 된 이치를 설명한다. 신과 인간이 우주에 생겨나게 된 천지개벽과 인류창생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설명한다.

[b날과국 섬김]: 굿하는 날짜와 장소를 설명하는 제차다. 지금 굿을 진행하고 있는 시간과 굿판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설명하는 것이다.

[c마을연유닭음]: 왜 굿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사연을 신에게 아뢰는 대목이다. 마을에서 본향당신을 모시며 살아 온 역사와 수난, 그리고 마을에서 생겨났던 불의의 사고를 설명하면서 올해는 불의의 사고가 생기지 않게 하고, 농사도

잘 되게 하여 가가호호에 걱정할 일을 없게 해달라고 기원하고, 그러한 연유로 굿을 하게 되었다고 고하는 대목이다.

[㉔군문열림]: 하늘에 있는 ‘신궁의 문(軍門)’을 열어, 신이 인간의 기원에 감응하고 인간의 세계로 내려올 의사 여부를 점을 치고 확인하는 하강의식이다. 신의 뜻을 물을 때는 점을 치는데 심방은 감상기의 움직임으로 신의 하강하는 모습과 신의 의사를 보여주려 하며, 신을 안내하는 듯한 춤, 신의 움직임, 곧 신명을 나타내는 격정적인 춤을 춘다. 신의 의사를 점칠 때는 정중하게 절을 하며, 감상기를 양손에 잡고 세워 흔들며 고개를 숙였다가는 바로 앉아 요령을 흔들어 신에게 염원하는 바를 알리고, 신칼을 돌려 점을 친다. 군문의 괘가 나오지 않으면, 더욱 격렬하게 춤을 추고 더욱 정중하게 절을 하는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군문의 괘가 나오면 손바닥을 꺾었다 폈다하는 답례춤을 추고 절을 한 다음, 신칼점과 산판점을 하여 신의 뜻을 묻고 점괘로 신의 뜻을 알아낸다.

[㉕산받음]: 군문을 연 뒤에 신칼점과 산판점으로 신의 뜻을 묻고 신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다.

[㉖분부사름]: ‘산을 받아서’ 알아낸 신의 뜻을 심방의 입을 통하여 인간에게 전달하는 것, 곧 신의 분부 말씀을 인간에게 아뢰는 것이다.

[㉗주잔권잔]: 굿 한 자리가 끝날 때마다 신을 따라 온 잡신과 군병들에게 술을 대접하는 것으로 심방이 산을 받아 분부를 사릴 때, 소미는 상에 놓인 세 개의 술잔에 술을 부어 대접에 적셔 흠뿌린다.

[㉘새드림]: 초감제의 <군문열림>이 끝나고 신을 청해 오는 오리정 신청례를 하기 전에, 굿판을 깨끗하게 씻어 부정을 없애는 정화의례로서 물을 뿌려 새[邪]를 쫓는다. 그리고 푸다시를 하여 본주나 단골들의 몸에 깃든 새를 내쫓아 신을 맞이할 굿판과 단골들의 몸을 정화하는 것이다.

② <본향뵐>은 신을 맞이하는 맞이 의례이다. 심방이 신청례를 하여 오리 밖까지

나가서 신을 맞이하면, 본향당신은 사냥하는 모습으로 위용을 굿판에 보이며 들어 온다. 본향당신을 맞이하여 좌정시킨 뒤에 삼헌관이 소지를 사루어 기원하고 절을 하며, 신들을 모두 자리에 앉히는 제차이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내력담인 당신본풀이가 불린다.

[㉙신청례]: 신을 오리 밖까지 가서 정중히 맞이해 오는 청신의례이다.

[㉚본향청함]: 당신을 맞이해 들이는 과정으로 당본풀이→우봉지주잔→본향드리의 순으로 진행된다. 당본풀이는 당신의 내력담이고, 우봉지주잔은 당신을 따라 온 군졸들에게 술과 떡을 던져주는 것이다. 본향드리는 당신이 굿판에 등장하는 대목이다. 본향당신의 모습을 심방이 재현하는 것으로 심방의 팔에 화살통 같이 ‘풀찌거리’라고 하는 천을 묶고, 감상기를 활로, 신칼을 화살로 잡고 힘센 장수의 위용과 사냥하는 모습을 심방이 보여준다.

[㉛소지사름]: 백지를 불로 태우며 단골들의 바람을 신에게 전하는 기원 의례이다.

[㉜정대우]: 좌정한 자리를 정리한다. 풀찌거리를 벗어 ‘삼천병마기더레-’라고 창을 하며 신칼점을 하고 쌀을 캐우린 뒤에 자리를 정리하기 위하여 춤을 추면서 자리를 고르고, 요령을 흔들어 순위대로 앉히는 것이다.

[㉝삼헌관 헌작배례]: 신이 좌정한 뒤에, 굿을 의뢰한 마을의 대표되는 삼헌관이 삼곡과 폐백을 차린 보답상을 함께 받아들여 본향당신에게 바치고 세 번 절한다.

[㉞음복지주잔]: 배례를 한 후, 삶은 계란과 술을 음복한다.

[㉟군웅놀림]: 신을 좌정시킨 후, 굿판의 흥을 살려 신을 즐겁게 하는 석살림굿이다.

③ <추물공연>은 좌정한 신들에게 차린 음식을 대접하는 공연(供宴)의례이다. ㉔나까시리놀림→㉕지장본풀이→㉞삼천군병지사름의 순서로 진행된다.

[㉟나까시리 놀림]: 신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대목이다. 소미들이 나와 시루떡을 공중으로 던지면서 돌리고 놀리는 떡춤을 추어 신을 기쁘게 하고, 시루떡을 던

저 신이 대접에 흡족해 하는가를 묻는 떡점을 친다.

[⑥지장본풀이]: 지장신의 내력을 설명하는 본풀이다.

[⑦삼천군병지사빔]: 잡신(雜神)을 대접하는 의례이다.

④ 석살림(군웅놀림) *

⑤ 마을 도산받음은 당신을 좌정시킨 후, 마을의 1년 운세를 점을 치고, 점괘를 통하여 신의 뜻을 알아내어 신앙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⑥ 집안 각산받음은 마을의 가가호호 참석한 단골 신앙민들의 집안 운세를 점치는 것이다.

⑦ 마을 도액막음은 마을의 액운을 막는 제차이다. 제차는 ㉠사만이본풀이→㉢산받아분부사뵈→㉡마을 도액막음→㉣각산받음→㉤넋들이고 푸다시함의 순서로 진행된다. 마을의 액을 막는 마을 도액막음의 의례에서 닭의 목을 잡아 빙빙 돌리고 땅으로 던져 희생한다. 사람의 목숨 대신 닭을 죽여 사람의 액을 막는 것이다.

⑧ 집안 액막음은 각 집안의 액을 막는 행위로 환자가 있으면 넋을 들이고 끝난다.

⑨ 산신놀이는 사냥놀이, 사농놀이라고 하는데 사냥을 하며 살던 본향당신을 놀리는 의례이다.

⑩ 도진은 굿을 끝내고 신을 보내는 송신의례이다.

2. <와흘본향당본풀이>와 사농놀이

1) 와흘본향당본풀이(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①와흘본향①(조천면 와흘리)

<신당>

웃손당은²⁾ 어멍국³⁾

알손당은⁴⁾ 아방국⁵⁾

아들애기⁶⁾ 예레듬⁷⁾

딸애기⁸⁾ 쭈물으듬⁹⁾

일가방상¹⁰⁾ 삼백육십

가지가지 벌어진

신도본향¹¹⁾ 한집.¹²⁾

2) 윗松堂은.

3) 어머니국.

4) 아랫松堂은.

5) 아버지국.

6) 아들애기.

7) 열여덟.

8) 딸애기.

9) 스물여덟.

10) 일가친척.

11) 神道本鄉.

12) 大王.

손당머리 열책¹³⁾ 아들
 백조도령이
 무식만 피혀
 옥항에 올라가
 삼천장 배릿돌¹⁴⁾
 일천장 먹을 골고¹⁵⁾
 아름 ㄹ득¹⁶⁾ 금책¹⁷⁾
 줍이¹⁸⁾ ㄹ득 금붓¹⁹⁾
 공비를²⁰⁾ ㅎ고²¹⁾
 백조도령이 인간에 ㄴ르²²⁾
 할로양주산으로²³⁾
 물장오리로 태역장오리로
 민오름 굼부리로
 큰지거리 족은지거리로
 바농뱅디에

-
- 13) 열째.
 - 14) 버릇돌.
 - 15) 갈고.
 - 16) 가득.
 - 17) 神冊.
 - 18) 줍이.
 - 19) 神붓.
 - 20) 공부를.
 - 21) 하고.
 - 22) 내려.
 - 23) 漢拏瀛洲山으로.

앓아²⁴⁾ 천리 보고
 사²⁵⁾ 만리를 보고
 츠츠²⁶⁾ 실러내려²⁷⁾
 임추녀ㅁ르에 오라
 앓아²⁸⁾ 천리 보고
 사²⁹⁾ 만리 보고,
 또 츠츠³⁰⁾
 알레레³¹⁾ 실러내려³²⁾
 웃느늘³³⁾ 개머리동산 앓아,³⁴⁾
 좌우 쪽을 살펴보단³⁵⁾
 기시내오름 상상봉오지에
 올라가

-
- 24) 앓아.
 - 25) 서서.
 - 26) 차차(차츰).
 - 27) 실어내려(내려와).
 - 28) 앓아.
 - 29) 서서.
 - 30) 차차(차츰).
 - 31) 아래로.
 - 32) 실어내려(내려와).
 - 33) 조천면 와흘리 2동.
 - 34) 앓아.
 - 35) 살펴보다가.

외대바지³⁶⁾ 선씨³⁷⁾ 할으방³⁸⁾ 시난,³⁹⁾

그 할으방신디⁴⁰⁾ 말을 흙을,⁴¹⁾

“늑⁴²⁾ 한거리⁴³⁾

만년폭낭⁴⁴⁾ 아래

좌정흔 게⁴⁵⁾ 누게냐?”⁴⁶⁾

“서울⁴⁷⁾ 서정싱⁴⁸⁾ 딱님애기⁴⁹⁾

좌정흔엿<엿>습네다.”⁵⁰⁾

“이 명암을⁵¹⁾ 그디⁵²⁾

갓다⁵³⁾ 주라”

36) 외대밭이.

37) 玄氏.

38) 할아버지.

39) 있으니까.

40) 할아버지한테.

41) 하기를.

42) 조천면 와흘리.

43) 큰거리.

44) 萬年팽나무.

45) 것이.

46) 누구냐?

47) 서울.

48) 서정승.

49) 다님애기.

50) 좌정하였습니다.

51) 명함을.

52) 거기.

53) 갓다.

명암⁵⁴⁾ 혼장을⁵⁵⁾

서정싱⁵⁶⁾ 딱님애기신디⁵⁷⁾ (365)

갓다주난⁵⁸⁾

“어서 ㄱ차이⁵⁹⁾ 들어옵서”⁶⁰⁾

혼난⁶¹⁾

백조도령은 말을 혼되,⁶²⁾

“우리 서로 부배간⁶³⁾ 무어⁶⁴⁾

같이⁶⁵⁾ 살자.”

그영 혼연⁶⁶⁾

늑⁶⁷⁾ 한거리⁶⁸⁾

만년폭낭알로⁶⁹⁾

54) 명함.

55) 한장을.

56) 서정승.

57) 따님애기한테.

58) 갓다주니까.

59) 가까이.

60) 들어오십시오.

61) 하니까.

62) 하기를.

63) 부부간.

64) 삼아.

65) 같이.

66) 그렇게하여서.

67) 조천면와흘리.

68) 큰거리.

69) 萬年팽나무아래로.

혼디⁷⁰⁾ 좌정^{ㅎ여},⁷¹⁾
 동니에⁷²⁾ 웃어륀들⁷³⁾
 다 청^{ㅎ여}⁷⁴⁾
 “우리 일로⁷⁵⁾ 좌정^홀⁷⁶⁾ 테이니
 정월 열나흘날
 대제일⁷⁷⁾ ^{ㅎ여}⁷⁸⁾ 도라.⁷⁹⁾
 칠월 열나흘날
 대제일 ^{ㅎ여} 도라.”
 제일, 1월 4일 과세문안제,
 1월 14일 대제일,
 7월 14일 대제일,<.>
 <제주시 봉개동 남무 54세 김만택님>

70) 같이.
 71) 좌정하여.
 72) 동네에.
 73) 웃어른들.
 74) 청하여.
 75) 여기로.
 76) 좌정할.
 77) 大祭日.
 78) 하여.
 79) 달라.

㉠와흘본향㉡(조천면 와흘리)

<산신토>

손당당⁸⁰⁾ 열흔^켓⁸¹⁾ 아들롭서⁸²⁾
 사냥놀이⁸³⁾ 땡기단⁸⁴⁾
 기시내오름 오라
 앓아⁸⁵⁾ 좌정^{ㅎ고} 보니
 한거리⁸⁶⁾ 검폭낭알⁸⁷⁾
 큰도부인이 좌정^{ㅎ여} 이서<잇어>,⁸⁸⁾
 최씨⁸⁹⁾ 외대바지⁹⁰⁾ 할으바님안티⁹¹⁾
 “중매를 ^{ㅎ여}⁹²⁾ 줍센”⁹³⁾

80) 구좌면송당리堂.
 81) 열한째.
 82) 아들로써.
 83) 사냥놀이.
 84) 다니다가.
 85) 앓아.
 86) 조천면와흘리 큰거리.
 87) 神땡나무아래.
 88) 있어서.
 89) 崔氏.
 90) 외대받이.
 91) 할아버님한테.
 92) 하여.
 93) 주십시요하고.

명암을⁹⁴⁾ 드리니
 최씨 외대바지 할으방이
 그 명암을 받아,
 큰도부인안티⁹⁵⁾ 간⁹⁶⁾ 전⁹⁷⁾ 흐니
 “애기⁹⁸⁾ 상⁹⁹⁾ 먹을
 노린족달 한족달
 서족달을 받아먹읍네다.”
 먹는 음식 말을 ¹⁰⁰⁾ 흐연,
 “어떤 일로 이¹⁰¹⁾ 걸 먹느냐?”
 “어느 애¹⁰²⁾ 낳¹⁰³⁾ 냐?> ¹⁰⁴⁾ 흐민
 입인¹⁰⁵⁾ 달 아니구¹⁰⁶⁾ 뵈네까?”
 그¹⁰⁷⁾ 영 흐니

94) 명함을.
 95) 큰도부인한테.
 96) 가서.
 97) 전하니.
 98) 아기마을.
 99) 노마을.
 100) 하여서.
 101) 이것을.
 102) 아기는.
 103) 낳자고.
 104) 하면.
 105) 입인들.
 106) 아니먹고싶습니까?
 107) 그렇게 하니.

손¹⁰⁸⁾ 당¹⁰⁹⁾ 열¹¹⁰⁾ 헛¹¹¹⁾ 아들은
 큰도부인신디¹¹²⁾
 “¹¹³⁾ 브름알로¹¹⁴⁾ 좌¹¹⁵⁾ 정¹¹⁶⁾ 흐¹¹⁷⁾ 라”
 흐연,
 올¹¹⁸⁾ 래¹¹⁹⁾ 삼¹²⁰⁾ 천¹²¹⁾ 백¹²²⁾ 매¹²³⁾
 일만초¹²⁴⁾ 깃¹²⁵⁾ 빨¹²⁶⁾ 을 불¹²⁷⁾ 러오¹²⁸⁾ 던
 신¹²⁹⁾ 당¹³⁰⁾ 한¹³¹⁾ 집.
 제일, 1월 14일 대제일,
 7월 14일 대제일,<.>
 <제주시 삼도동 남무 58세 김오생님>

2) 사농놀이

108) 松堂里의堂.
 109) 열한째.
 110) 큰도부인한테.
 111) 바람아래로.
 112) 좌정하라.
 113) 하여서.
 114) 올래(門戶).
 115) 三千白馬.
 116) 一萬超깃빨을.
 117) 神堂大王.

〈참고문헌〉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2002.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일렛당 신앙과 본풀이

이현정 (제주대학교)

일렛당은 제주도 신당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한 신앙권 안에 세네 개의 일렛당이 자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일렛당에는 일렛당신이라 불리는 여신(女神)들이 좌정하고 있는데, 이 신들은 15세 이전 아이들의 산육(産育)을 관장하는 산육신이자, 피부병·안질(眼疾) 등의 풍토병과 복통, 경증, 경세 등에 효험을 보이는 치병신으로 숭앙됩니다. 아이가 무탈하게 자라길, 가족들이 건강하길 바라는 우리네 어머니의 염원, 그것이 단연 일렛당의 분포와 수효에 대한 의문점을 풀 수 있는 열쇠겠지요.

일렛당신을 부르는 이칭(異稱)들도 많습니다. 일뤼할망, 일뤼또, 일뤼중저, 서당국서, 서당할망, 서물한집, 허물할망 등이 모두 일렛당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¹⁾ 일렛당신, 일렛당의 ‘일뤼’는 잘 아시다시피 당의 제일이 매 7일(초일뤼[7], 열일뤼[17], 스무일뤼[27])이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죠. 그래서 일렛당신을 칠일당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당의 이름과 신명(神名)에 제일(祭日)이라는 신앙 요소가 깊게 관여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일렛당이라고 불리는 신당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당의 이름과 신명이

같은 뿐 실제로 분포하는 일렛당신의 계보들이 꽤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제주시 일부와 애월읍, 한림에 이르는 서부 지역에는 일렛당신이라 불리기보다 “송씨할망”처럼 송씨 성을 붙여 부르는 여신들이 훨씬 많습니다. 계보가 다른 신들은 당에 얹혀 전하는 내력담, 곧 “신성의 근본을 가감없이 풀어내는 이야기”인 본풀이의 내용도 다릅니다.

그간의 학자들은 본풀이 내용을 기준으로 도 전역에 분포한 일렛당 계열을 곱갈라 왔습니다. 현용준은 토산 일렛당 계열, 서귀읍 호근리 일렛당 계열, 안덕면 하모리 계열로 제주도 일렛당신의 계보를 크게 구분한 바 있고,²⁾ 장주근 역시 본래 일렛당신의 본풀이는 용왕의 셋째 딸(동해요왕 딸젓딸아기)가 좌정하게 된 내력을 쫓 「토산 웃당본풀이」가 제주 동부의 여러 지역에 전하지만 중부와 서부에서 분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³⁾

도 전역에 산재한 일렛당 가운데 가장 폭넓게 분포하는 계열은 “토산 일렛당”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⁴⁾ 제주도 전역을 기준으로 가장 너른 분포를 보이는 신당인 만큼 『제주풍토록』, 『남환박물』 등의 고문헌에 짧게나마 그 양상이 전합니다.

1) 현용준은 “서당”의 뜻을 제줏말 “서먹다”, “서먹는 물” 따위에 쓰인 “서”를 통하여 유추한 바 있다. “서먹다”는 “곡식이 아직 채 익지 않았을 적에 베어다 먹는 것”을 말하며, “서먹는 물”이란 “어린 아이들이 잘 빠져 죽는 물”을 이르므로 제줏말 “서”에는 유(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파악하였다.(현용준, 『제주도 마을 신앙』,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34쪽.) 그밖에 “할망”, “-또”, “-중저” 등은 여신을 높여 지칭하는 용어이며, “허물”은 피부병에 효험이 있는 일렛당신의 직능과 연관된다.

2)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도서출판 각, 2007, 770쪽

3)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도서출판 역락, 2001, 44쪽.

4) 토산 일렛당 신앙과 토산 으드렛당 신앙은 다르다. 소위 토산 당신앙이라 하면, ‘정의 한집’, ‘정의 본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뱀신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는 토산 으드렛당 신앙이다. 토산 일렛당은 ‘토산 웃당’이라 하고, 토산 으드렛당은 ‘토산 알당’이라 하여 구분한다.

『제주풍토록』에 말하기를, “귀신에 제사 지내는 것을 지극히 숭상하고 남자 무당이 매우 많다. 사람들을 재화로 공갈하여 재물을 취함이 마치 흙을 긁어모으는 것 같다. 삭망(朔望)과 칠일(七日)에는 짐승을 희생하여 제를 지낸다.”라고 하였다.⁵⁾

“칠일에 짐승을 희생하여 제를 지낸다.”는 기술은 “뚝케기”를 제물로 받는 일렛당 계열 신앙을 가리킬 여지가 큼니다. 이 계열 일렛당 신앙은 “송당 본향당”에서 “김녕 케네깃당”신앙 간의 계보와도 얹혀 있습니다. 소로소천국과 백주또의 아들인 케네깃도의 큰부인이 바로 이 계열 일렛당신의 계보를 잇기 때문이죠.

보통 송당 계열 남성신과 결연을 맺게 되지만, 돼지고기 문제로 살림을 분산하고 각각 따로 좌정하는 것이 이 계열 일렛당신들의 보편적인 내력입니다. 본향당과 일렛당의 제의 규범을 여신이 어떻게든 뚝케기와 얹혀 “동경내를 풍기는” 부정을 저질러 부부신이 별거하게 되었으며, 이런 이유로 남편신은 제물로 육류를 받지 않고 아내신은 뚝케기를 흠향한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풀어낸 것이죠. 용왕의 딸로 태어난 여신은 이처럼 특정 남성신과 결연을 맺은 뒤 육식 금기를 어겨 추방되지만, 일곱 아기를 낳고 다시금 돌아와 일렛당신으로 좌정하게 됩니다. 이 계열에 속하는 일렛당 본풀이의 주요 골자를 <토산본향당본풀이>와 <케네깃당본풀이>을 중심으로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 (1) 소로소천국과 백주또의 아들 브르뚱도가 불효하여 무쇄석함에 갇힌 채 동이와 당으로 띄워짐
- (2) 무쇄석함이 요왕국 산호수에 걸림
- (3) 용왕의 세 딸 중 막내딸만이 무쇄석함을 열 수 있어 브르뚱도와 혼인하게 됨

5) 이형상 지음, 이상규·오창명 역주, 『남환박물』,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9, 114-115쪽.

- (4) 브르뭇도의 식성이 너무도 좋아 용궁의 공간이 텅텅 비어감
- (5) 용왕이 하는 수 없이 내외 간을 무췌석함에 실어 띄어 보내 버림
- (6) 무췌석함은 구좌읍으로 들어오게 됨
- (7) 소로소천국과 백주또에게 내외 간이(혹은 동해요왕 말젓딸아기)가 부술로 안질을 주고 낮게 함
- (8) 동해요왕 말젓딸아기가 돛대기 부정을 저지르게 됨
- (9) 브르뭇도가 부인을 마라도로 귀양 보내고 첩을 들임
- (10) 첩이 브르뭇도에게 큰부인의 거취를 캐물은 뒤 마라도로 찾아감
- (11) 큰부인은 이미 일곱 아이를 낳고 기르고 있었음
- (12) 첩이 큰부인에게 아기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라 설득함
- (13) 첩이 큰부인에게 그간 고생하였으니 자신이 일곱 아기들을 맡아 뒷길로 데려갈 테니, 형님은 바닷길로 오라고 함
- (14) 첩이 돌아오는 길에 아기 한 명을 잃어버림
- (15) 이를 알게 된 큰부인이 첩을 추궁하자 잃어버린 아기를 찾아 나섬
- (16) 아기는 몸과 얼굴이 심하게 상한 상태로 발견됨
- (17) 아기를 잘 달랜 뒤 큰부인(혹은 큰부인과 첩)은 일뤼당신으로 좌정하여 단골에게 숭앙 받게 됨

앞서 일뤼당신이 산육뿐만 아니라, 피부병과 안질을 낮게 하는 효험이 있다는 믿음은 이 같은 본풀이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동해요왕 말젓딸아기가 부리는 부술이나 잃어버린 아기를 찾았을 당시의 모습 등을 떠올리시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일뤼당신 외에도 일곱아기 단마실청이 일뤼당에 좌정하고 있다는 사유의 연원도 역시 본풀이에 있죠.

이 계열의 일뤼당신들은 출자처를 “바다”에 두고 있습니다. 보통 본풀이 상에서 “용왕녀”, “동해요왕 말젓딸아기”로 불리기 마련입니다. 신화적 상징(원형 상징)에서도

바다는 “여성성”, “모성”, “풍요” 등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여신들은 잠수(해녀), 어부 등의 생업과 안전을 보살피는 해신으로 좌정기도 합니다.

토산 일뤼당 계열들은 신앙권에 따라 본풀이 내용은 비슷하지만 결연을 맺는 남성신의 계보나 신격을 달리하는 작법으로 저마다의 일뤼당 신앙을 꾸리며, 서귀포에서 성산읍, 구좌읍 등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특히 이 계열의 일뤼당 신앙은 여성 단골들을 사이에 크게 성행하면서, 본향당 신앙에 영향을 끼칠 만큼 위력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토산 본향당(웃당)이 토산 일뤼당이라 불리거나 「토산본향당본풀이」가 「일뤼도본풀이」와 가까운 면모로 변한 사정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⁶⁾

토산 본향당 또는 일뤼당 신앙은 특히 <아기놀림>과 함께 살필 때 더욱 의의가 뚜렷해집니다. <아기놀림>은 토산당곳에서 벌이기도 하였고, 정의 지역과 관련이 있는 단골이 사갓집곳을 벌일 때에도 으레 연행하는 곳놀입니다. 아이를 어르고 달래는 육아 습속을 매우 사실적으로 극화(劇化)한 의례인데, 심방이 아기 인형을 실제 아기처럼 다루며 실생활에서 벌이는 육아 행위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기를 품에 안아 재우기, 등에 업고 달래기, 음식 먹이기, 목욕시키기 등 육아 생활의 실체가 곧 의례 양상이어서 특별합니다.

설운 아기 노념ㅎ저 설운 큰어머님 ㅎ여 주던 던데떡 죽은 어머님 ㅎ여 주던 줌메 떡으로 지달래자. [樂. 업은 아기 인형의 손을 잡고 짹짹 꾹꾹 죄암질을 하며 춤춤]...(중략)... 설운 아기덜 아바님, 설운 아바님 어서 가져. 아방국 좇젠흔 아기 너미 울엿고나. 그리말고 설운 아바님 진짓상 늣어온다. ...(중략)... 침짱 품짱 허여 보난, 설운 아

6) 강정식은 토산웃당은 토산본향당이지만 신앙의 중심이 일뤼도로 옮겨지면서 일뤼당이라 불리고, 본풀이도 「일뤼도본풀이」에 가까운 면모로 바뀐 것으로 이해한 바 있다.(강정식, 『제주굿 이해의 길잡이』, 민속원, 2015, 341쪽.

기 오뉴월 한더위에 너미 입언 즈드랑이 물러진 듯 허여 온다. 설운 아기 부령 노념히고 몸모옥 시기곡 던데 줌메 너잡은정도 흐라 혼다. 줌재움정도 흐라 혼다. ... (중략) ... 설운 아기 몸모옥 시겨 보난 너미 울엿고나. 그리 말고 설운 아기 노념히고 던제 줌메 마니정도 노념이여. [樂. 짹짹 꿈 죄암죄암 도리도리 시켜 노는 시늉의 춤을 춘 후, 아기를 채룡(아기구덕)에 눕혀 자장가를 부르며 혼든다.]⁷⁾

〈아기놀림〉의 비념에는 ‘일곱아기단마실청(아기나청)’의 내력을 중심으로 잃어버렸던 아기로부터 인간에게 내려지는 흥협(물버리, 당버리 등의 피부병과 안질)을 피하고자 하는 불양(祓禳)의 기원이 포함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본풀이 내용과 의례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의례에서 심방이 보여주는 행동들은 우리네 어머니들이 겪어야 했던 육아의 고단함을 고스란히 담아 내고 있습니다. 생활 습속과 생활상이 민간 신앙에 고스란히 투영된 사례, 생활의 최접선에 놓였던 당신앙의 특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귀읍 호근리 일렛당 계열은 토산 일렛당 계열과는 전혀 다른 본풀이가 전승됩니다. 현용준은 제주시에서 동회(東廻)하여 서귀읍에 이르기까지 토산 일렛당계 이야기가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며 번져나가다가, 호근리에서 이르러 새로운 일렛당 본풀이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⁸⁾ 본풀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애비국하로산또의 막내딸이 거듭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름
- (2) 부모는 막내딸을 대바구니에 담아 서천밭에 버림
- (3) 대정 형방이 잃어버린 말을 찾으러 다니다가 버려진 막내딸과 마주하게 됨

7) 문무병, 『제주 민속극』, 제주전통문화연구소, 도서출판 각, 2003, 299쪽.

8) 현용준(2013), 앞의 책, 35쪽.

- (4) 막내딸이 형방에게 “물이 서분뻗졌디 개탕쉬낭게 애개 돌아지연 죽었다”고 함
- (5) 형방이 막내딸의 비범함을 알아채고 말 꿈무니에 집어 넣어 데리고 다님
- (6) 막내딸은 형방이 하원, 중문, 감산, 창천리 등을 지나칠 때마다 일렛당을 세우도록 함
- (7) 형방이 대정현에 도착하여 물팡돌에 막내딸을 두고 가버림
- (8) 막내딸은 일렛를 기다려도 자신을 찾는 이가 없자 옥할망으로 좌정함

본풀이에 따르면 호근리 일렛당은 애비국하로산또의 막내딸이 옥할망으로 좌정하기 전에 마련한 곳입니다. 본풀이 이본에 따라 이 신은 호근리 뿐만 아니라 도순, 중문 혹은 하원 등에도 일렛당을 마련하며 대정현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이런 서사는 신앙의 전파나 분화 같은 변화 상과 긴밀한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근리의 일렛당 신앙은 본향당 신앙과 다소 얽혀 있으면서 으드렛당 신앙의 흔적까지 보이기에, 쉬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옥할망이라는 신격은 칠성신앙(뽕신앙)과 관련되기 마련인데, 이 옥할망의 좌정담에서는 본향당 신앙(한라산신 계보)와 일렛당 신앙, 옥할망 신앙 간의 연결 고리가 있을 뿐이고 칠성신앙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보통 토산리 일렛당 계열에서 “일곱아기 단마실청”으로 불리는 신격이 이곳 호근리에서는 “으둑아기 단마실청”으로 달리 나타나는 점도 주목할 만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일렛당 계열은 서귀포 중문면 예리게입니다. 여기에서 전승되는 본풀이 역시 토산 일렛당 계열, 호근리 일렛당 계열과 뚜렷하게 다른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풀이에 등장하는 주체들이 여신이라는 설정만 제한다면, 한라산을 출자처로 삼는 혈연 관계의 신들이 산을 내려와 각자 좌정처를 탐색하다가 분산하여 좌정한다는 한라산신계 본풀이 짜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안덕면 창천·감산리 일렛당 신앙도 이 계열에서 갈라져 나와 마련된 것입니다. 안덕면 도

처에서 전승되는 본풀이 내용들을 참고하자면, 서귀포 중문면 예리게 일뤼당 계열의 본풀이는 대략 이런 흐름을 띠니다.

- (1) 서귀포시 색달동(혹은 하예동) 본향당신에게 딸 일곱 형제가 있었음
- (2) 맏딸은 서귀포시 대평동 당밭 난드르 일뤼중저로 좌정함
- (3) 둘째딸은 중문면 상예리 망밭중저로 좌정함
- (4) 셋째는 안덕 화순리 원당밭 너주믈 일뤼중저로 좌정함
- (5) 넷째는 사계리 청밭할망 일뤼중저로 좌정함
- (6) 다섯째는 안덕 감산리 도그샘이(고도세미) 일뤼중저로 좌정함
- (7) 여섯째는 안덕면 창천리 닥밭할망 일뤼중저로 좌정함
- (8) 일곱째는 중문면 상예리 전상당 일뤼중저로 좌정함

다만 이 계열의 여러 본풀이를 살필 때는 저마다의 주체에 따라 자매간 순위 설정을 달리하기 일쑤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감산리와 창천리는 같은 신앙 권역이었는데, 후대에 창천리가 신앙권을 분리하면서 일뤼당을 “가지가름”하였고, 이런 내력이 본풀이 이본들 상에 혼란스럽게 남아 전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양상 자체가 신앙권이 변화하여 온 역사를 본풀이가 유동적으로 담아 낸 흔적이라는 사실에 더욱 방점을 두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자매들이 부모에게 불효한 죄로 한라산에서 추방 당하여 각각의 좌정처를 찾게 된 것으로 설정된 이본도 존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반신 신앙의 영역에 15세 이전 아이들을 보살피는 삼신(삼승할망)이 있다면, 당신앙의 영역에서는 일뤼당신이 이 역할을 맡습니다. 삼승할망과 일뤼당신이 제주도 무속 체계 안에서 산육신의 직위를 동시에 지니는 셈입니다. 하지만 삼신 신앙이 일뤼당 신앙보다 우위를 점령하면서 일뤼당과 유사하지만 다른, 삼신 신앙의 성격을 견인한 당신앙들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물할망당

과 같은 사례도 함께 견주어 볼 만 하며, 돌미륵 신앙을 기저로 하는 당신앙들과 일뤼당 신앙, 삼신 신앙 간의 직능적 교합 관계를 살필 필요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것처럼 제주도의 일뤼당 신앙은 다채로운 양상을 띠니다. 돛케기 금기를 어겨 부신(夫神)과 별거한 일뤼당신들의 내력이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한라산신 계보를 잇는 일뤼당신들 역시 제주도 일뤼당 신앙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뤼당 신앙은 공동체 신앙에서 점차 개별축원 신앙으로 변모하였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뤼당 신앙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작업은 크게 세 개의 일뤼당 신앙 계열 안에서, 특정 신앙권 내에서 벌어졌던 역사적·신앙적 변화를 감안하여 살펴야 하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일반신 신앙, 속성이 유사한 다른 당신앙 등과도 견주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 강정식, 『제주굿 이해의 길잡이』, 민속원, 2015.
- 문무병, 『제주 민속극』, 제주전통문화연구소, 도서출판 각, 2003.
- 이현정, 「제주도 서사무가〈할망본풀이〉의 형성원리 연구:〈할망본풀이〉와〈일헛
당본풀이〉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이형상 지음, 이상규·오창명 역주, 『남환박물』, 도서출판 푸른역사, 2009.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도서출판 역락, 2001.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도서출판 각, 2007.
- 현용준, 『제주도 마을 신앙』,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제주의 바다와 생업]

- <16세기 초 김정(金淨) 『제주풍토록』> “길이 험악하고 돌이 많고 메마르고 평토가 절반도 못되어 밭가는 자는 생선 배의 뼈를 발라내는 것과 같다.”
- <17세기 후반 김상헌(金尙憲) 『남사록』> “바위와 돌이 널려 있고 흙이 덮인 것이 몇 치뿐이라서, 삼과 면화가 나지 않아 의복과 음식이 모두 부족하다. 오직 해산물을 채취하여 생업으로 삼는다.”
- <17세기 초 이건(李健) 『제주풍토기』> “미역을 캐는 자는 잠녀라 일컫는다. 2월 이후부터 5월 이전에 이르기까지 바다에 들어가 미역을 캔다. 그 미역을 캐 때는 이른바 잠녀가 발가벗은 몸으로 바닷가를 두루 채우고, 낚을 들고 바다에 떠다니다가 거꾸로 바다 밑으로 들어가 미역을 캐 끌어 나온다.”
- 화산섬 토양 제주, 반농반어(半農半漁)의 척박한 삶. ‘바다밭’을 일구는 삶
 - 해녀의 물질, 어부의 어로활동 / 물때, 조류, 바람 등 민속지식의 형성과 전승.
 - 각 마을마다 바다밭 인식, 원담(갯담), 불턱, 테우 등 어업의 다양한 양상
 - 바다밭의 무사안녕과 풍요 기원, 생업공동체의 유대 강화 필요(위험률 상존)

[물질과 어로 활동의 안녕과 풍요 기원]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2월 초하루에 귀덕 김녕 등지에서는 장대 12개를 세워 신을 맞이하여 제사지낸다. 애월에 사는 사람들은 때 모양을 말머리와 같이 만들어 비단으로 꾸미고 악마희(躍馬戲)를 해서 신을 즐겁게 했다. 보름이 되어 끝내니 이를 연등(然燈)이라 한다. 이달에는 승선을 금한다.

<김상헌의 『남사록』> 대개 제주 풍속은 2월을 연등절이라고 하는데 전설에 의하면 당나라 상인의 배가 패하여 표몰한 자가 사체(四體)가 분해되어 두골은 제주 동 어등포에 들어가고, 수족은 제주 서남 고내 애월 명월 등의 포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은 정월 28일부터 촌중에서 쌀을 거두고, 2월 초 5일에 이르러 연등신을 제사하는데, 매년 정월 그믐 때엔 바람이 서해로 오면 타방(他方) 신이 왔다고 하여 모든 무당을 모아 들제(野祀)를 지내고 밤낮으로 촌가에 출입하며, 2월 상순이 되면 또 배 모양을 만들고 돛대를 갖추어 포구에 띄우는데 이것을 신에 보낸다고 하며 이 때에 바람이 동북으로 오면 타방 신이 떠났다고 합니다.

[제주의 해신당]

- 본향당, 일헛당(+마을에 따라 여드렛당 추가) 등 +해신당(해안마을인 경우)
- 개당, 돈짓당, 남당, 술일(戌日)당 등의 유형으로 형성(+어부당, 잠녀당, 선왕당 등)
- *개와 돈지는 바닷가 지경을 뜻하나, 남당의 의미는 모호
- *술일(戌日)은 개를 뜻하는 간지인 술(戌)이 포구의 의미인 개와 음이 같은 데서 연유
- 당신의 명칭 : 용녀부인(요왕해신부인), 개당하르방/개당할망, 돈지하르방/돈지할망, 남당하르방/남당할망, 영감또 등
- 바닷가 포구 주변에 마련함. 해신당 성격의 신당이 복수로 존재하기도 함
- 마을 주민들의 어업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 해녀와 어부 보호
- 해신당마다 정해진 제일이 있거나, 초하루/보름 등에 다녀옴
- 과거에는 고유한 명칭으로 불렸으나 근래 들어서 다양한 명칭들을 통칭하여 해신당으로 통칭하는 경우가 많음. 해신당 현판이나 해신 위패를 세우는 경우가 늘어남
- 마을 본향당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지만, 본향당이 곧 해신당 성격일 수도 있음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해신당]

- 애월읍 애월항 해안가에 마련
- 주민들은 보통 '남당'이라고 부름
- '해령지신위'(海靈之神位) 돌로 된 위패
- 당신 '개로육서도 해신당한집'
- 애월리 본향당이며 어업도 관장
- 정월에 유교식 마을제인 포제를 지내고 난 뒤 날이 밝으면 당에서 해신제를 지냄
- 과거는 당굿이었으나 현재는 유교식 의례
- 베행질 : 해신당에 주로 정월과 팔월 명절을 이를 앞두고 다녀감. 배(어선)를 위한 명절
- 사람에 따라 초하루, 보름에 가는 이도 있음
- 선주일 경우 당에 다녀온 뒤 배에 가서 비냄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해신당]

1. 대섬밭당
 - 당신 : 대섬밭 영감또(영감신/왼쪽 제단) 선왕(船王), 어업 관장
 - *2014년 당 정비하며 영등신(오른쪽 제단)도 모심
 - 제일 : 초하루, 보름(술일에도 다님)
 - 돼지머리(또는 턱뼈) 바침
 - 과거 한림읍 일대 '영등당'의 당굿 때 마지막 순서로 대섬밭당에서 배를 놓았음
 - 근래 한수리 영등굿 복원됨
2. 개당
 - 문씨할망 : 어업 관장 / 나무데크 시설 설치
 - 제일 : 3일, 7일, 술일



[제주시 한림읍 옛 영등당과 당신본풀이]

- 영등당은 한림읍 일대 한림리, 수원리, 한수리, 대림리 등의 본향당(현재 폐당)
- 영등굿은 매년 음력 2월 초하루에 영등신을 맞아 축원하고 신을 즐겁게 놀린 후 그 달의 첫 축일(丑日)에 신을 돌려보낼 때까지 며칠 동안이나 이어지던 마을의 큰굿이었음(1960년경 이전 없어짐)
- 영등당본풀이는 영등당의 내력(2개 채록)
- '항영등'이라는 영등대왕이 한수리 고깃배가 풍파를 당하여 외눈배기 땅에서 만난 죽을 위험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 자신은 외눈배기들에 의해 희생당하였으며, 그 시체가 바닷가 마을로 들어가고 그 뒤 그를 위해 영등제를 지냄(김승은 심방)
- *일반적인 영등신 전승과 근접 *김상현의 『남사록』
- 유대감 집에서 글을 가르치던 '전영등'이라는 존재가 2월 초하루에 사망하고 유대감이 그를 위해 제사를 지내자 나중에 그 집에 풍년을 가져다 주었고, 전도에 퍼져서 영등제를 지냄(양태욱 심방)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성세깃당]

- 해녀와 어부의 안전, 바다풍요 기원
- 성세기 포구 입구 남쪽 위치
- 근래 사업가나 타지의 자손 안전 기원 부각
- 당신 : 요왕황제국 말жат아들
- 제일 : 음력 1-18, 3-8, 7-8/18, 9-8/18
- 당굿은 비념 형식으로 지냄.
- 다만 3월에는 잠수굿(당이 아니라 해변에서 굿)
- 당신이 3월에 요왕개폐문을 열고 나와 생신상 받음
- 제일 3월 8일에 담긴 의미
영등달을 지나 어업활동이 시작되는 3월,
8일은 물때가 시작되는 날.
마을 잠수굿이 실제 생태환경과 밀접하게 관련



[제주시 화북동 해신사]

- 조선 후기 관에서 설립한 유교식 해신제 사당
- 1820년 한상목 목사가 화북포구에 설립
- 1841년 이원조 목사가 해신사 중수
- 1849년 장인식 목사가 '海神之位' 위패 모심
- 늦어도 1940년대에 해신사와 해신제 폐지됨
- 주민들이 해신사 복구, 현재 마을제로 지냄
- 1973년 제주도 기념물 제22호로 지정
- 해신사는 마을 서쪽의 '금돈지 포구'에 있음
- 화북동 금돈지해신당 : '금돈지 해신 영감'과 '해신부인'을 모시며, 타지에서 물자를 실은 배가 들어오거나 제주목사가 제주에 들어오면 찾던 곳.
- 해신사는 기존의 금돈지해신당을 기반으로 하였다고 짐작. 해신사는 해신당의 변형
- 조선 후기 무속의례와 유식의례의 연관성, 습합 양상이 나타남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새룻당]

- 새룻당 고망할망 : 어업 관장(어선과 해녀)
- 새룻당 내력 <나주기민창조상본> 본풀이 참고
- 조천관 안씨 선주가 부자로 잘 살았다.
- 제주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자 목사의 명령에 따라 곡식을 구하러 육지로 떠났다.
- 나주고을에서 기민창의 곡식을 구하여 돌아오는 길에 배 밑이 터져 조난 위기에 처하였다.
- 큰 뱀이 나타나 구멍을 막아주었고 안씨 선주가 뱀을 집으로 모시고자 하였다.
- 뱀은 조천 포구의 새룻알로 들어가 좌정하였다.
- 단골들은 뱀을 부군칠성으로 집에서 일월조상으로 위하고 새룻당에서도 모신다.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새룻당
-영등굿 때 비념
-고망할망 : 어업 관장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서물당]

- 알가름 서물한집 : 어업 관장(어부, 해녀), 제일은 서물날(물때 '세물'. 음력 11일, 26일)
- 서물한집은 미력조상(제단 밑에 묻었다고 함) *제주도 미력신앙
- 김침지 하르방이 서물날에 낚시를 갔는데 은진미력 석상보살이 자꾸 걸려 올라왔다.
- 김침지 하르방에게 동해용궁따님아기가 현몽하여 자신이 은진미력돌로 변신이 되었으니 함덕 어부와 잠수들이 서물날에 자신을 위하여라고 하였다.
- 김침지 하르방이 조상을 위하여였다. 다른 어부와 잠수들도 조상을 위하여니 잘 되었다.



함덕리 서물당
-영등굿 비념
-서물한집 : 어업 관장, 미력 조상
→
최근 모습



[해신당의 비념]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생개납
돈짓당

서귀포시
강정동
세별포
개당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해신당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돈짓당



[해신당과 영등굿]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각시당
-영등굿(음력 2월 12일)
-용녀부인 : 어업 관장
*마을에는 남당도 있음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해신당
-영등굿(음력 2월 15일)
-족지할망 : 어업 관장

제주 으드렛당 신앙과 본풀이

류진옥 (제주학연구소)

으드렛당 신앙과 토산리 알당

으드렛당은 제일(祭日)이 8일인 제주도 신당(神堂)에 대한 통칭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다소 애매한 명칭일 수 있겠다. 본향당이나 일렛당, 산신당, 해신당 등과 같이 당신(堂神)의 직능에 대한 명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으드렛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당들이 유사한 의미를 가진 채 전승해 온 내력에는 대표적으로 ‘토산리 알당’ 본풀이와 그에 대한 신앙이 자리잡고 있다. 으드렛당의 대표격인 토산리 알당은 나주 금성산에서 온 금성산 토주지관 ‘대룡신(大龍神)－뱀신[蛇神]’을 모시는 당이다. 토산리 알당의 사신신앙(蛇神信仰)은 조선 삼읍체제의 정의현(旌義縣)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왔으며 현재의 성산읍, 표선면, 남원면, 서귀포시 일대를 포함한다. 이는 ‘딸을 통하여 전승된다’는 토산리 알당 신앙의 전승 양상을 보았을 때 당시의 통혼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8일인 제일을 기준으로 하여 으드렛당으로 불리는 당 중에 토산리 알당과 관계 없는 경우도 있다. 산신당의 직능과 처녀 원혼신을 함께 모시는 중문동 호근이마

루 으드레한집 계열, 처녀 원혼신인 현씨일월애기씨를 모시는 신천리 본향당, 송씨할망을 모시는 납읍리 돛당 등이 명칭은 동일한 으드렛당이면서 다른 계열의 직능을 보여주는 예이다. 돛당을 제외한 다른 으드렛당의 경우 동일한 계열은 아니지만 토산리 알당과 유사하게 처녀 원혼을 모시고 있다는 동일함을 찾아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신을 모시는 당 중에 으드렛당이 아닌 경우도 있다. 외도동의 두리빌렛당, 조천리 새콧할망당 등의 경우가 그러한데, 이들 당의 경우는 조천읍 선흘리 안씨집안에 전승하는 나주 기민창조상신 본풀이와 연관된 내력의 사신을 모시지만 으드렛당은 아닌 경우이다.

토산리 알당 본풀이

으드렛당 신앙을 대표하는 토산리 알당의 본풀이를 통하여 당신의 성격과 토산리 알당 당신 좌정 내력, 당신의 직능, 신앙 전승 양상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토산리 알당 본풀이는 서사 구성이 완벽한 당본풀이 중 하나로 구술본 전체를 담아내기엔 분량이 상당하므로 축약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정리를 위한 근거 자료로는 현재 전승하는 자료 중 가장 이른 시기인 1930년대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채록된 것으로 서귀포 남무(男巫) 박봉춘의 구연 자료를 택하였다.¹⁾ 시기적인 측면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인 만큼 더 원형의 내용을 담보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 자료를 설명하면서 편자가 실은 주석에 “정의(旌義) 토산리(兔山里)의 본향당

1) 일제강점기 시절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를 지낸 아카마쓰 지쵸(赤松智城, 1886-1960)와 아키바 다카시(秋葉隆, 1888-1954) 두 민속학자가 1930년~1933년 사이 대학제국학사원帝國學士院의 연구 지원비를 받아 우리나라 전국을 답사하며 채록한 자료 중 하나이다.



1. 토산리 알당



2. 토산리 알당 측면(토산 포구)

을 토산당이라 칭하고 사신(蛇神)을 제사지낸다. 그 본생담(本生譚)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현재 토산리 알당을 당시 토산리 본향당으로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라 주목할 만하다. 다음이 본풀이 내용이다.

나주목사 자리에 부임하는 관리들이 매번 과직을 당하고 돌아오니 아무도 그 자리에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영주 사는 이목사가 나서 그 자리에 부임하게 되었다. 부임하던 날 이목사가 나주 금성산을 지나는데 난데 없이 번개에 큰 비가 내리니 그 이유를 물었다. 하인은 금성산 신당 당신의 기운이 세어 말을 내려 예의를 갖추고 지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목사가 말에서 내리니 사위가 조용해져 그 지경을 지나갈 수 있었다. 부임 후 사흘이 지나 이목사는 영험한 나주 금성산 당신을 찾아뵙겠다고 나섰는데, 산 앞에 서니 안개가 자욱하였다. 함께 간 하인의 말을 듣고 다시금 이목사가 당신에게 안개를 걷어 달라 청하니 날이 맑아져 산에 오를 수 있었다. 산에 올라 보니 팔층누각의 대궐 같은 당이 있어, 당지기에게 당신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곳을 해야 볼 수 있는 신령이라 하였다. 그 말을 따라 곳을 하였더니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상악(上顎)은 천황(天皇)에 붓르고 하악(下顎)은 지황(地皇)에 붓튼 삼두구미(三頭九尾)의 대룡신(大龍神)’이 나타난 것이다. 이를 본 이목사는 ‘패모야광주(貝瑁夜光珠)’를 물었냐고 묻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 바로 자객에게 명하여 당신을 조각조각 베어 불태워 버렸다.

조각 나 불태워진 대용신(大龍神)은 바둑돌로 환생하였다. 금바둑돌, 은바둑돌로 환생하여 서울 거리에 떨어진 대용신을 제주에서 서울로 진상 간 토산리 강씨 형방과 한씨 이방이 발견하였다. 다른 지방에서 올라온 모든 진상품이 퇴짜를 맞아도 금바둑돌, 은바둑돌을 몸에 지닌 강씨 형방과 한씨 이방은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 돈도 많이 벌며 제주로 돌아가게 되었다. 가는 길에 생각하니 이 모든 일이 그 바둑돌의 영험한 기운에 도움을 받은 것인 듯 한데, 제주에 돌아가 이 영물(靈物)이 흉험이라도 될까 두려워 그 바둑돌을 주웠던 서울 거리에 다시 두고 가려 하였다.

제주로 갈 배를 띄우려는데 갑자기 날씨가 변하여 바람이 너무 세어지니 석달 백일을 기다려도 나아지지 않아 어찌할 바 없어 점을 치게 되었다. 점괘가 나온 바, 강씨 형방과 한씨 이방이 제주로 모시고 가야 할 신위(神位)가 있으니 이를 모시지 않으면 살아서는 제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둘은 동짓달 얼음 같은 한강수에 목욕재계를 하고 다시 그 금바둑돌, 은바둑돌을 주워 뱃머리에 모시고 온갖 정성으로 제물을 차려 제를 올렸다. 거짓말 같이 물결은 가라앉고 순풍이 산들 불어 큰 돛을 올려 제주로 출발하니 순식간에 제주 가까이 닿았다. 제주를 눈 앞에 두고 선원들은 다시 그 영물의 위해(危害)를 걱정하여 이리저리 근심하다 바닷물에 던져 버렸다. 잔잔하던 파도는 다시 미친 듯이 춤을 추고 배는 곧 부서질 듯 하는데, 손 닿을 듯 가까운 제주에 배를 댈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 말 그대로 죽을 힘을 다하여 애를 써도 산지천에 들지 못하고, 조천에도, 김녕에도 들지 못하다가 파도에 떠밀려 겨우 정의 열눈이(지금의 온평리)에 가 닿았다. 다들 낮이 나서 죽은 듯 자는 듯 늘어져 있는데 난데 없이 달님 같은 예쁜 아기씨가 뱃전을 나서 열눈이로 들어선다.

아기씨는 열눈이 토주지관(土主之官) 멩호부인에게²⁾ 인사를 올리고 나주 영산(靈山) 금성산 토주관이었음을 고한다. 멩호부인이 “이 곳은 땅도 내 땅 물도 내 물 인간도 내 인간이라.”며 비어 있는 땅으로 토산리 알당을 소개한다. 아기씨가 토산 땅에 들어서 산도 보고 물맛도 보고 좌정하기 적당하다 생각을 하는데, 아름다운 아기씨를 보고 상천리 토주관이 난데 없이 달려들어 손목을 붙잡으니 “제주는 여인이 혼자 다니지 못할 곳으로구나.” 하고 잡혔던 손목을 은장도로 깎아 명주 수건으로 감싸 안고 나서 용당³⁾루 알당에 좌정하였다. 그런데 마을에서 이 신을 대접하는 인간이 없었다.

2) 온평리 본향당신 멩호부인 멩호안전.

하루는 오좌수택 딸이 하인을 데리고 올리소에 빨래를 가는데, 토산리 알당 토주관은 기척 없는 인간들에게 흉험을 주고자 광풍을 일으켜 그 앞을 지나던 왜선을 파선시키고, 그 배에서 살아남은 왜구들이 물에 올라 오좌수택 딸을 덮쳐 윤간하고 죽게 만들었다.

토산리 강씨 형방과 한씨 이방은 누이바꿈을³⁾ 한 외동딸이 하나씩 있었는데, 유월 염천(六月炎天) 보리방아를 찼다가 둘이 함께 급질을 당하였다. 심방을 청하여 곁을 하며 해원을 해가니 딸아이들 입에서 서울 진상 다녀오던 길, 오좌수택 딸이 죽어가던 일, 나주 영산 토주관 아기씨는 토산 알당을 지키고 있고 오좌수택 딸은 그 밑에서 인간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분부가 쏘아졌다. 내 머리 말의 궤상에 들어 있는 강명주 물명주를 열어 보라 하여 열어 보니 그 안에 ‘만주에미’라 부르는 작은 뱀들이 팔라 있었다. 그 뱀들을 풀어내어 ‘두 일뿔 열나홀’ 동안 큰곳을 하며 모시니 두 딸아이들은 쾌유하였다. 그 후로 나주 영산 아기씨는 본향당신으로 모시고, 집안으로는 ‘일월조상’으로 모시니 집안에 부귀가 가득찼다. 그 후로 옷토산, 알토산, 여우네, 삼서호리까지 정의 각지로 이 신을 모시게 되었다.⁴⁾

토산리 알당 본풀이는 나주 금성산에서 시작하여 서울-제주-온평리-토산리라는 기나긴 여정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당신 본풀이가 갖는 신격 좌정을 위한 노정기를 보여준다. 나주 금성산 토주관과 영주 출신의 이목사의 대립에서부터, 온평리 당신과의 친견, 상천리 토주관과의 대립, 왜선 침몰, 왜구와 오좌수택 딸의 참극, 강씨 형방과 한씨 이방 딸들에게 빙의한 오좌수택 딸의 해원, 이로 인한 극적인 신격 좌정과 신앙민들의 숭앙으로 이어지는 서사 구조는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풍

3) 누이바꿈 : 두 남자가 서로 상대방의 여자 형제와 결혼하는 일.

4) 赤松智城·秋葉隆 共編, 沈雨晟 옮김, 『朝鮮巫俗의 研究(上)』, 동문선, 1991, 223~230쪽 참조.

부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토산리 알당 본풀이에서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몇 가지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신(蛇神) 숭배

제주도의 사신 숭배는 사실 으드렛당이나 토산리라는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광범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기원도 아주 오랜 것으로 보여진다. 유배 왔던 조선조 유학자들이 남긴 기록에 어렵지 않게 뱀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이견(李健, 1614~1662)의 『제주풍토기』에 “가장 괴로운 것은 조밥을 먹는 일이요, 가장 두려운 것은 사갈(蛇蝎)이요, 가장 슬픈 것은 파도소리다.”라고 하였듯이 섬이라는 지형 조건이 뱀에 대한 관념 혹은 신앙을 다층적으로 만들어가는데 작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제주도에서 뱀 신앙은 주로 재물과 관련한다. 제주도 전역에 관념하는 부군칠성 신앙은 칠성본풀이 내력으로 전승하는데, ‘나에게 태워진 조상’으로 가옥의 안(안칠성)과 밖(밖칠성)에서 집안의 번영을 수호하는 신앙이 있다. 앞서 언급하였던 나주 기민창조상본풀이나 고대장본풀이, 선홀리 안판관본풀이 등 집안의 수호신인 조상신본풀이 중에서도 뱀 신앙에 대한 내력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또한 제주만의 신앙이라 할 수 없으며, 대표적으로 육지의 업신앙 등은 이와 유사한 신앙관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토산리 알당 본풀이의 마지막에 집안으로 들어서면 ‘일월조상’으로 모시는 것처럼 동일한 대상 신격에 대한 다층적인 신앙관념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들 신격은 잘 위하면 집안의 번성을 약속하지만 숭앙을 그만 두거나 소홀히 하게 되면 무서운 흥험을 받거나 집안 전체가 쇠락의 길을 걷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옛 시절 토산리 새각시들에 대한 과도한 오해가 오랜 시절 따라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처녀 아기씨 원령(怨靈)

토산리 본향당신이 된 나주 금성산 아기씨는 토산리에 좌정하는 과정에서 수치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손목을 스스로 깎아내는 아픔을 겪는다. 물론 이는 원한이기 보다는 당당함의 모습으로 이후 처녀 원혼들의 수호신으로 상징되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토산리 알당 본풀이 뒷부분에 등장하는 오좌수댁 딸은 이유 없이 원혼이 된 존재이다. 토산리 본향당 아기씨는 오좌수댁 딸의 원한을 강씨 형방과 한씨 이방의 딸들을 통하여 발화하고 해원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상징성은 토산리 알당과 직접적 연계는 없지만 으드렛당이라는 이름 아래 처녀 원혼을 모시는 신천리 현씨일월당 등을 이해하는 데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역사적 사건이었



3. 신천리 현씨일월당

던 조선 중기 ‘천미포 왜침’(1552년)과의 연관성이 제시되기도 한다.⁵⁾ 그런데 이와 연
관하여 으드렛당 신앙이 이 사건 이후에 발흥한 신앙 관념이라 확정하는 것에 대
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토산리 알당 신앙 전승

현재 토산리에는 두 개의 당이 존재한다. 토산1리(웃토산)의 토산리 웃당과 토산2
리(알토산)의 토산리 알당이다. 웃당의 제일이 7일이어서 토산리 일렛당이라고도 부
른다. 일렛당과 으드렛당이지만 토산리 주민들에게는 토산1리 본향당, 토산2리 본
향당으로 관념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전승하는 대부분의 자료들에 토산리 알당 제일은 6월과 11월의 8일(18일, 28
일)로 남아있다. 단지 1950년대 출간된 일본인 학자의 자료에만 3월 제일이 제시되
고 있다.

토산당 제사는 매년 3회로 3월 8일·6월 8일·11월 8일에 닭·떡·감주를 올리고, 부락
의 남녀 주민이 모이면 무당이 제사를 행하는 것이며 돼지는 절대로 금물이다. 즉 돼
지를 먹은 사람은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 지방의 사람은 토산당의 뱀은 돼지
를 꺼리지만, 김녕의 뱀은 돼지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돈당(豚

5) 문무병은 『제주도 본향당신앙과 본풀이』(민속원, 2008, 225~227 참조)에서 “제주도 여드렛당 신
앙은 조선 중기 ‘천미포 왜침’(1552년) 이후의 일이다. 다시 말하면 왜침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
한 집단적 대응이 ‘원령의 한을 달랜다’는 신앙심리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정리하고
있다.



4. 토산리 알당 제일(2022. 3. 8.)



5. 토산리 알당 제물

堂)의 동굴도 본래는 사굴이며, 그곳에 사는 돼지를 좋아하는 여신은 소위 돼지를 좋아하는 김녕의 뱀과 같은 종류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⁶⁾

으드렛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돛당의 내력에 대한 기술도 주목할 만한데, 주요하게는 토산리 알당의 제일과 제물에 대한 설명이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3월 제일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자료는 이 자료가 거의 유일한데, 흥미로운 것은 현재 토산리 알당의 제일이 이와 같다는 것이다.

이제는 당의 위치도 토산 포구로 변하였고, 차양을 둘러친 하우스 건물로 지어져 예전 당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당굿을 하지 않고 개인별 비념과 액막이 중심의 ‘앗인제’로 변화된 지 오래 되었지만 제일만큼은 3월, 6월 11월의 8일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간의 자료들은 대부분 토산1리^(토산웃당) 본향당에 대한 제일과 동일하게 토산리 알당의 제일을 기록해왔던 것으로 보여진다. 웃당의 경우는 전승하는 기록과 같이 현재도 6월과 11월의 8일에 제일을 지낸다.

올해 토산리 알당 제일 조사를 위하여 마을을 방문하였을 때 제일 먼저 만나본 분이 92세 여성 어르신이었다. 92세이면서 여성이므로 당연히 당 제일에 대한 기억이 있으실 것이라는 기대에 이런 저런 질문을 해보았지만 시종일관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당굿을 본 적이 없다. 이 마을에 당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 당 같은 데 가는 사람이 없고 없어진지 오래 됐다.’는 대답 뿐이었다. 문득 책에서 읽었던 토산리 상단골의 구술^(口述)이 생각나는 대목이기도 했다. “금성산 당신은 변신 변형의 조화를 신통력으로 이루었던 당신 본체로 봐야 하고, 내가 출가시킨 누이와 여식도 8명이며 우리 마을 200여 호에서 출가시킨 처자는 근 1,000명이 될 것이니 蛇神이 따라다녔다는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떻게 조작되

6) 秋葉隆, 沈雨晟 옮김, 『朝鮮民俗誌』, 동문선, 1993, 260~261쪽.



6. 토산리 알당 지전·물색

어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막심한 한과 설움을 주었고 깊은 상처를 안겨준 것은 참으로 더없는 악몽입니다.”⁷⁾ 토산리 웃당의 전승과 알당의 전승이 다른 방향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토산리 알당 신앙은 올해도 전승되고 있었다. 이제는 포구에 위치하여 해녀들

의 생업 번성을 중심으로 하는 당으로 변모해 가고 있지만, 제일과 제물은 본풀이의 내력을 그대로 담아 안은 채 여전하게 전승되고 있다.

7) 오성자, 『신화의 땅 제주에서 토산을 만나다』, 2006, 52쪽.

제주학연구센터
‘찾아가는 제주학 이야기’

2022 제주신화학교

- 당 신앙과 당신 본풀이

